

2026
01

병리협보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www.kamt.or.kr

CONTENTS

01 COVER

2026 신년사

02 FOCUS

중소병의원 임상병리사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말
하다

03 KAMT NEWS

중앙회 제64차 정기대의원
총회 / 지회별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06 KAMT NEWS

법제포럼 / 송년회 /
국가시험 합격자발표
(12.31)

제516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Leading a Peaceful Life with Technology
주식회사 티알

발행인 이광우 / 편집인 서경아

편집위원 이도왕, 이현희, 남기준

디자인 한꽃님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2026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존경하는 임상병리사 회원 여러분,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이광우입니다.

붉은 말의 기운이 가득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느덧 28대 집행부의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2025년은 집행부의 꾸준한 노력과 회
원 여러분의 성원이 더해져 협회의 주요 과제들이 하나씩
가시화되기 시작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28대 집행부
는 누구랄 것 없이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을 다하며
협회를 위해 활동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에는 모든 의료기사의 숙원이었던 의료
기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수정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11월에는
의료기사가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되며 임상병리사의 제도적 역할 확대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단기간의 성과라기보다, 그간 축적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에도 집행부는 붉은 말처럼 멈추지 않고 힘차게 달
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정책 사업들이 제도적 성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료기사
법과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에 대한 후속 논의를 통해 임상
병리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
가겠습니다.

아울러 협회의 운영 체계를 보다 안정화하여, 조직의 지속
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중앙회와 시도
회 및 분과학회 간 협력 구조를 정비하고, 정책·교육·대외협
력 등 각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협회 운영 기반을 확
립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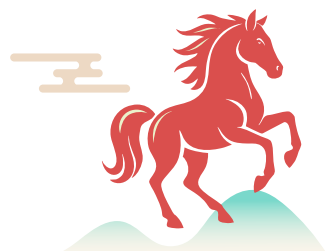
이와 함께 4년제 학제일원화를 비롯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체계의 합리
적 정비는 임상병리사의 전문성 강화와 직무 확장의 중요
한 토대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분히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산학협력과 현장
중심 사업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임상병리사가 지역 돌봄
체계 안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
습니다. 이는 임상병리사의 역할 제고는 물론, 국민 건강 증
진이라는 공익적 가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언제나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는 앞으
로도 회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협회장 이 광 우



같은 임상병리사...

또 다른 현실

(중소병의원 임상병리사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말한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외협력정책실장 김기유

중소병의원에서 일하는 임상병리사는 늘 조용한 자리에서 의료를 떠받쳐 왔다. 환자의 얼굴보다 먼저 검체를 마주하고, 진단의 출발점이 되는 데이터를 만들어 내지만, 그 역할은 종종 보이지 않는 업무로 취급된다. 같은 보건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임상병리사의 현실은 다른 직종과 비교할 때 유독 구조적 불균형이 두드러진다.

최근 대구 지역 300인 미만 중소병의원 보건의료 분야 6개 직종(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을 대상으로 한 설문 분석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조사 대상 6개 직종 가운데 임상병리사는 평균 경력과 근속연수가 가장 높은 직군에 속하지만, 임금 만족도는 최하위 수준이며, 고충처리 제도 접근성 역시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불만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중소병의원 구조 속에서 임상병리사가 처한 위치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대구 지역을 포함한 중소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의 근무 환경은 동일한 면허와 책임을 지닌 전문직이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차이는 개인의 선택이나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병원 규모에 따라 전혀 다르게 작동하는 구조적 조건에서 비롯된다.

경력是最 길지만, 보상은 가장 낮은 아이러니

임상병리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면허 전문직이며, 중소병의원 임상병리사는 의료현장에서 가장 오랜 숙련과 경험을 축적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체계는 오히려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력은 누적되지만, 그 가치가 임금과 처우로 환산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설문에 따르면 임상병리사는 평균 경력 16.6년, 평균 근속 11.3년으로 조사 대상 직종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간호사(9.0년), 이는 중소병의원 현장에서 임상병리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한 조직을 지탱해왔는지를 의미한다. 반면 임금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불만족 54.6%, 만족 11.5%, 평균점수 34점으로, 10명 중 5명 이상이 임금에 불만족하고 직종별로는 간호사 36.3점으로 상대적으로 만족,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는 평균 수준(34점대), 임상병리사(28.7점)·작업치료사(27.0점)는 만족도 최하로 간호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보다 현저히 낮은 결과를 보였다.

비교해 보면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방사선사는 상대적으로 주간근무 비중이 높고 노동시간·노동강도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군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는 교대근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관리와 보수교육 지원, 임금 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임상병리사는 업무 강도는 높고, 숙련도는 요구되지만, 보상 체계는 불안정한 중간 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오래 일할수록 손해를 보는 직종’이라는 인식을 낳고, 실제로 임상병리사의 이직 경험률은 90%를 넘는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개인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이 누적될수록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집단적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책임은 늘어나고, 결정권은 주어지지 않는 구조

임상병리사는 검사 오류, 장비 문제, 검사 지연 등 진료과정의 핵심 리스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의사결정 권한이나 제도적 보호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 검사의 정확도는 개인의 숙련도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충분한 인력, 명확한 역할 분리, 검사 전·중·후 관리에 필요한 시간이 보장될 때 비로소 유지된다. 과중한 업무와 비전문 업무가 병행되는 환경은 결국 검사 오류와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설문에서 ‘고충처리 담당자나 조직이 있다’고 응답한 임상병리사의 비율은 35.1%에 불과해, 간호사(54.6%)와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상병리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업무 부담이나 부당한 지시를 문제 삼는 순간, 이는 ‘개인 불만’으로 치환되기 쉽고, 조직 차원의 논의로 확장되기 어렵다. 같은 보건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는 구조와 말하지 못하는 구조가 직종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성은 필수지만, ‘보조 인력’으로 인식되는 현실

다른 직종과 비교할 때 임상병리사가 겪는 또 하나의 문제는 전문성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다. 임상병리사의 업무는 자동화·고도화된 장비 운용, 정확한 결과해석 및 보고, 품질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중소병의원에서는 이러한 전문업무에 대해 접수, 수납보조, 검체운반, 환경정리 심지어 감염관리 비전문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단순한 ‘업무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경계를 중소병·의원 현실에서는 여전히 ‘검사실 인력’이라는 포괄적 인식 속에서, 대체 가능하거나 보조적인 역할로 간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인식은 보수교육 지원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설문 결과, 임상병리사는 보수교육과 관련해 공가와 비용을 모두 지원받는 비율이 12.8%에 불과했고, 약 40%는 공가도 비용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다. 모두 지원받는 비율은 간호사(31.1%)가 가장 높아 비교적 제도적 지원이 확보되어 있기에 임상병리사 직군은 간호사 직군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전문성을 유지·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동일함에도, 그 비용과 시간은 개인의 몫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제들이 임상병리사 개인의 역량이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같은 조직 안에서도 직종에 따라 제도 접근성, 보호 수준, 인식이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은 곧 구조적 문제를 의미한다. 임상병리사는 안정적인 정규직 비율, 높은 근속률이라는 외형적 안정성 뒤에, 낮은 만족도와 높은 의욕 소진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 이는 당장의 인력 공백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전문 인력의 이탈과 검사 품질 저하라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전략적으로 대응책을 말해야 할 때다

현재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중소병의원발전위원회(위원장 최병호)를 두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첫 번째로 직무와 책임의 명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 오류와 관련된 책임 구조, 장비 관리와 행정 업무의 경계를 문서로 분명히 하고, 임상병리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범위를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작업을 통해 무면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한 임금구조를 전문직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의 요구함으로써 단순한 연봉이 아니라, 숙련도와 전문성이 반영되는 임금 구조와 보수교육 참여에 대한 공가·비용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협회는 정책적인 차원의 개입과 의료기사 직종의 연대를 통해 개별 중소병의원이 스스로 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은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통한 법제화 작업을 통해 임상병리사의 현실을 통계와 자료로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 가이드라인과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2026년 사업목표로 설정했다.

28대 협회 집행부는 회원을 위한 협회로 임기까지 회원들과 함께 할 것이다.

임상병리사는 진단의 출발점에 서 있는 핵심 보건의료 전문직이다. 검체가 채취되는 순간부터 결과가 임상진단으로 이어지기까지, 그 과정의 정확성과 신뢰는 임상병리사의 손을 거쳐 완성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병의원 현장에서 임상병리사의 위치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전문성은 당연한 의무처럼 요구되면서도 제도적 보호와 존중은 충분히 주어지지 않고 있다.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의 비교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의 구조가 얼마나 불균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이다. 보이지 않던 격차를 수면 위로 올려놓지 않는 한, 문제는 늘 개인의 인내와 희생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침묵이 반복될수록, 불합리한 구조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져 간다.

이제는 분명히 말해야 한다. 임상병리사의 헌신과 책임감에 기대어 병원이 돌아가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아야 한다. 숙련된 인력이 소진되고 떠나는 현상은 결국 검사 품질의 저하와 환자 안전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성은 요구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보상, 성장 경로를 제공하지 않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지금 이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 임상병리사들에게 같은 질문을 되돌려주게 될 것이다.

“왜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않았는가.”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공고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정관 제24조에 의거,
2026년도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일시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14:00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CJ홀

안건(안):

[제1호 의안] 전 회의록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25년도 회무 및 경과보고의 건

[제3호 의안] 2025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 안건은 2026년 2월 7일 토요일 제188차 정기이사회 이후 확정됩니다.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 **노 경 운**

지회별 대의원총회 일정

지회	일자	시간	장소
충남도회	2026.01.10(토)	11:00	홍성가족어울림센터 5층 나래홀(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48)
광주시회	2026.01.16(금)	18:30	어반브룩 (광주 남구 임암길 181 어반브룩)
울산시회	2026.01.16(금)	18:30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울산(울산 중구 번영로 360)
인천시회	2026.01.17(토)	16:00	파크마린호텔(인천 남동구 소래역로44)
경기도회	2026.01.17(토)	15:00	분당제생병원 본관4층 대강당(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80번길 20)
충북도회	2026.01.17(토)	14:00	청주대학교 2동 대학원 1층 세미나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강원도회	2026.01.17(토)	15:00	강릉 라카이 샌드파인 한송홀 (강원 강릉시 해안로536)
대구시회	2026.01.21(수)	18:30	호텔라운제나 5층 아모르홀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73)
대전시회	2026.01.21(수)	18:30	계룡스파텔 무궁화홀 (대전 유성구 온천로 81)
제주도회	2026.01.24(토)	15:00	제주대학교병원 2층 제1세미나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서울시회	2026.01.31(토)	14:00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대강당(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41)
전남도회	2026.01.31(토)	15:30	장흥군민회관 소회의실(전남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55)
경남도회	2026.01.31(토)	15:00	삼성창원병원 행정동 1층 대회의실(창원시 마산 회원구 팔용로 158)
전북도회	2026.01.31(토)	15: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3길 13-1
부산시회	2026.01.31(토)	15:00	BPEX 부산한국제전시컨벤션센터 컨퍼런스 홀 C (초량동 45-39)
경북도회	2026.01.31(토)	15:00	대경대학교 디자인동(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1길 65)

제514차 상임이사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12월 11일(목) 오후 6시 30분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514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19명 중 14명이 참석해 성원됐고 부장 26명 중 19명, 총원 45명 중 33명이 참석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정리된 각 부서별 보고사항으로는 ▲총무부 2026년 연간 주요 일정 보고, 2025년 제187차 정기이사회 및 송년회 개최 안내, 2027년 대한임상병리사 종합 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후보지 답사 결과 보고, 2025년 시도회, 분과학회 행정지도감사 감사자 선정 완료, 2026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기 감사 개최 안내, 사무국 직원 관련 보고, 국가검진 폐기능검사 추가에 따른 TF 구성의 건 ▲재무부 교부금 지급, 2025년 제63회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울산시회 3차 홍보지원금 지급, 신한카드(신한 LOVE(다드림) 카드) 발급 정회원 대상 경품 추첨 진행, 2025년 외부회계법인 감사 중간감사 및 시도분과 외부회계 감사 관련 보고, 2023년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행 관련 상황, 회의 식비 초과 내역 보고 ▲학술부 2025년 3차 연수강좌 안내, 2026 제주 학술대회 학술 기획(안), 2025년 연구·정책과제 연구기간 연장 보고, 2026년 정책과제 공모 방향 ▲교육부 맑은소프트 LMS 설명회, 보수교육위원회 회의 ▲국제부 제41차 AAMLS BOD(이사회) 개최 준비의 건, 국제연맹 연회비 납부의 건 ▲공보부 온라인 병리

협보 11월호 발행의 건, SNS 홍보의 건, 보도자료 배포의 건, 회원고충처리 현황 보고의 건 ▲정보통신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의 건, 전산 인프라 및 전산시스템의 고도화의 건, 2025년 상반기 통합홈페이지 문자 발송 서비스 비용 청구의 건, KT 비즈메가 전자문서 업무 용량 상품 업그레이드의 건, 월별 오피플러스(문자메시지) 사용내역 보고 ▲기획정책부 서울 다함께 어울림 한마당 축제 참가의 건, 정책개발연구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의 건 ▲법제부 2025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법제 포럼 개최 보고 ▲중소병의원부 2025년 16개 시도 중소병의원 대표위원 하반기 워크숍 진행, 중소병의원부 제3차 회의, 공익신고위원회 9차 회의 ▲보험부 협회 홈페이지 자료 업로드의 건, 제10차 보험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 의결에서는 2027년 종합학술대회 개최지 선정의 건, '지회운영규정' 개정의 건, '보수교육 규정' 및 '교부금지금 시행 세칙' 개정의 건, '포상·징계 규정' 분리 후 '징계 규정' 제정의 건, '포상·징계 규정' 분리 후 '포상 규정' 제정의 건, '해외학술대회 지원규정' 개정의 건, 교부금 지급 시행세칙 개정의 건, 여비규정 개정의 건, 회의수당 운영세칙 개정의 건, 찬조금 규정 개정의 건, '정책 관련 행사 비용 지급 세칙' 제정의 건, '산하단체 운영규정' 개정의 건, 2026년 제54회 보건의 날 포상대상자 인준 요청의 건이 진행됐다. '정책 관련 행사 비용 지급 세칙' 제정의 건은 유보됐고 그 외 안건은 모두 통과됐으며 이후 제514차 상임이사회는 폐회했다.

중앙회 동정

12월 3일 정보통신부 전산시스템 고도화 관련회의
12월 6일 산하단체 행정지도 감사
 2025 법제 포럼
12월 9일 중소병의원발전위원회
12월 11일 제514차 상임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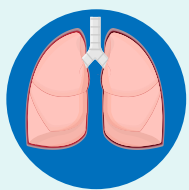
12월 12일 전산시스템 재구축 TF 회의
12월 16일 제41차 AAMLS 이사회
12월 20일 공익신고위원회 회의
12월 23일 전문임상병리사 운영위원회 회의
12월 27일 제187차 정기이사회 및 송년회

제187차 정기이사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지난 12월 27일(토) 오후 1시 30분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187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이사회에는 총원 50명 중 46명(성원), 감사 3명이 참석했다. 제187차 정기이사회에서 정리된 각 부서별 보고사항으로는 ▲총무부 2025년 제8회 보건의료기사의 날 기념식 참석 보고, 2025년 제513차 상임이사회 및 시도 분과 행정지도감사 교육 개최, 사무국 직원 관련 보고, 제63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지원금 관련 보고, 2025년 시도회, 분과학회 행정지도감사 감사자 리스트 보고, 2025년도 제53회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안내, 2026년 연간 주요 일정 보고, 2026년 제188차 정기이사회 개최 안내, 2027년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후보지 답사 결과 보고, 2026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기 감사 개최 안내, 국가검진 폐기능검사 추가에 따른 TF 구성, 2026년 제54회 보건 의료의 날 포상대상자 보고 ▲재무부 교부금 지급, 2025년 재산세(토지분) 납부, 대외협력 자문위원 정책자문료(2025년 9월~12월분) 지급, 서울시회 한마음단합대회(체육대회) 찬조금 지급, 회계 프로그램 더존 아마란스 계약 보고, 협회 제휴카드 사용 기금 적립, 2025 서울시 K-어울림 건강문화 페스티벌 기부금 지급, 2025년 협회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2025년 2기 예정 부가세 납부, 2025년 제63회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결산 보고, 2025년 제63회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울산시회 3차 홍보지원금 지급, 신한카드 (신한 LOVE(다드림) 카드) 발급 정회원 대상 경품 추첨 진행, 2025년 외부회계법인 감사 중간감사 및 시도분과 외부회계 감사 관련 보고, 2023년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행 관련 상황 ▲학술부 종합학술대회 학술 관련 보고, 학술센터 고도화 사업 추가 As-Is 제출, 학술부 연수강좌, 국제학생포럼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교수협의회-협회 공동회의, 강사 기준 및 강사로 지급 기준 개정(안) 상정, 2026년 정책과제 공모 방향, 국제편집위원 및 국내 편집간사, 편집위원 임명, KJCLS 저널(반응형) 홈페이지 및 대한임상검사와학회 국제위원 접속 페이지 구축,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학술센터 서비스 메뉴 구조 ▲교육부 한국임상병리교육평가원 제4차 운영위원회, 임상병리사 현장 (임상)실습 법제화 관련 교수협의회 및 전국 임상병리학과장 회의, 전문임상병리사 시험 최종 점검 회의, 전문임상병리사 인정시험 시행, 2025년도 임평원 원장단 회의 개최, 맑은소프트 LMS 설명회, 보수교육위원회 회의, 국군의무학교 보수교육 진행의 건 ▲국제부 JAMT 단 기트레이닝 개별 참가자 관련 보고, 2025 교차트레이닝 프로그램 참가 완료, 제41차 AAMLS BOD(이사회) 개최 및 실시, 국제연맹 연회비 납부, 2026년도 해외학회 일정 안내 ▲공보부 온라인 병리협보 발행, SNS 홍보, 보도자료 배포, 매경헬스 창립 18주년 창간 협찬, 데일리메디 창간 22주년 광고 협찬, 2025 보사편람 광고 협찬, 회원고충처리 현황 ▲정보통신부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전산 인프라 및 전산시스템의 고도화, 이상담센터 운영, 전산장비 구입 보고, 2025년 상반기 통합홈페이지 문자 발송 서비스 비용 청구, KT 비즈메가 전자문서 업

무 용량 상품 업그레이드, 월별 오피플러스(문자메시지) 사용내역 보고 ▲기획정책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보고, 국회 입법박람회 참가 보고, '2025 Healthy 강남' 손앤손 건강걷기 축제 참가, 서울 다함께 어울림 한마당 축제 참가, 정책개발연구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법제부 2025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법제 포럼 개최 ▲정무부 2025 김근태 재단 희망바자회 찬조금 지급,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출범식 참석 보고,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업무협약 체결 보고 ▲중소병의원부 제63회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중소병의원부 활동, 공단검진개설기준 개선을 위한 실무자 2차 회의, 중소병의원 발전위원회 회의, 공익신고위원회, 2025년 16개 시도 중소병의원 대표위원 하반기 워크숍 진행, 중소병의원부 제3차 회의, 간호법이후 임상병리사 업무범위 리스트 준비 1차 회의 ▲보험부 협회 홈페이지 자료 업로드, 제8차~제10차 보험부 회의 개최, 채혈료 산정위원회 회의 개최 보고, 미디어이미팅(건강보험청구심사교육) 건이 보고되었다.

이어진 안건 심의 및 의결에서는 정기대의원총회 자료집 간소화의 건, 2023년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행 관련 상황 방안 논의의 건, 2027년 종합학술대회 개최지 선정의 건, '지회운영규정' 개정의 건, '산하단체 운영규정' 개정의 건, '지회운영규정' 개정의 건, 여비규정 개정의 건, 찬조금 규정 개정의 건, '포상·징계 규정' 분리 후 '징계 규정' 제정의 건, '포상·징계 규정' 분리 후 '포상 규정' 제정의 건, '해외학회대회 지원규정' 개정의 건, '전문임상병리사제도 운영규정' 개정의 건을 진행했다. 안건은 제2호, 5호 및 12호 안건이 유보, 그 외는 모두 의결되며 제187차 정기이사회는 폐회되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폐기능검사 온라인 무료 교육 개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026년부터 56세~66세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에 만성 폐쇄성폐질환(COPD) 검사를 도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회원들이 정확하고 원활하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 제작해 온라인 무료 교육으로 개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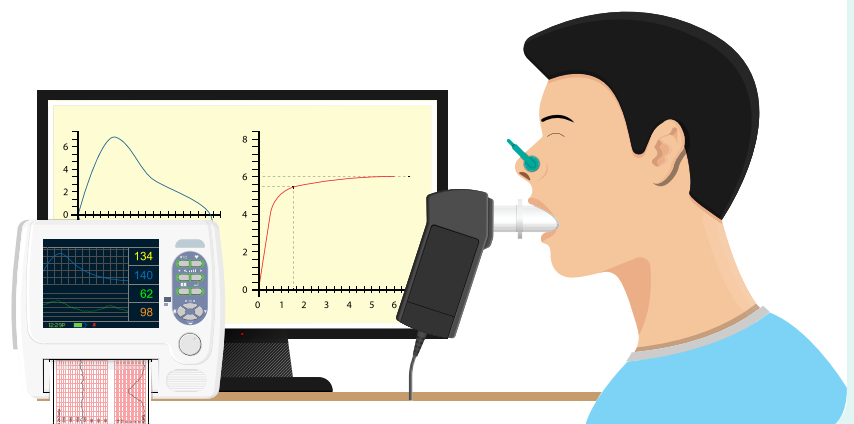
폐기능검사 온라인 무료 교육은 협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이론(48분)과 실기(16분)로 나누어있다. 또한, 폐기능검사 교육 강의를 함께 제공한다

교육 관련 공지사항과 강의자료 확인

협회 홈페이지 ▶ 소통광장 ▶ 정회원 복지 서비스

https://www.kamt.or.kr/info/regular_welfare_view.aspx?brld=138087

Pulmonary Function Test





대한임상병리사협회 2025년 법제 포럼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12월 6일(토) 오후 2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지하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법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법제 포럼은 '협회 법제 현안 공유 및 향후 공동 대응 방안 논의'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김도형 법제부장이 사회를 맡고 김한규 기획부회장의 축사로 포럼의 막을 열었다.

포럼은 ▲외부 특강 1(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 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부문 정책연구기

획센터 교수 양성일) ▲법제 특강(법제이사 김동현) ▲외부 특강 2(스마트 AI 대표 양성웅) ▲기획정책 특강(기획정책이사 박희열) ▲정무 특강(정무이사 고인철)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오 행정부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관계자 36명이 참석해, 2025년도 한 해 동안의 주요 법제 현안을 점검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025년 송년회 개최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12월 27일 오후 5시 30분 고려대학교 수당삼양 패컬티하우스에서 2025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송년회를 개최했다. 지우현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송년회는 내빈 소개를 시작으로 이광우 협회장의 환영사와 안용호 자문위원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광우 협회장은 “올해는 임상병리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정책과 입법 전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해였다”며 “내년에는 이러한 성과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임상병리사의 전문성과 역할이 더욱 확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용호 자문위원은 “이번 자리는 2025년을 정리하며 임상병리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새해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회원 여러분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현장에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임상병리사의 가치를 더욱 높여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에서 준비한 협회 1년 활동영상 시청이 진행됐고 차기 학술대회 홍보영상 시청과 함께 제64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대회장인 제주특별자치도 임상병리사회 정무상 회장의 인사말을 전했다. 정무상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학문적 성과는 물론, 회원들이 제주에서의 시간을 통해 재충전과 교류의 즐거움까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임상병리사들이 현장을 찾아 의미 있는 경험을 공유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년회는 단체사진 촬영과 만찬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국시원, 2025년도 제53회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응시자
2,954명

합격자
2,49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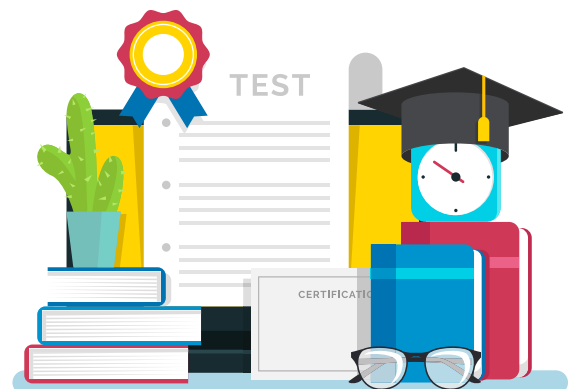
합격률
84.8%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 이하 '국시원')이 지난 12월 14일(일) 시행된 2025년도 제53회 임상병리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12월 31일(수)에 발표했다.

제53회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은 전체 응시자 2,954명 중 2,497명이 합격해 84.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번 국가시험에서는 280점 만점에 278.0점(99.3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대구보건대학교 노종민씨, 신성대학교 박채은씨, 혜전대학교 조혜찬씨, 동의과학대학교 김지승씨, 안산대학교 이수민씨가 수석을 차지했다.

제53회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의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국시원은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재)씨젠의료재단은 「씨젠메디칼타워」에서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의 책임을 다하고, 검사 품질의 완벽을 실현하겠습니다.

(재)씨젠의료재단 본원 신사옥
「씨젠메디칼타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288
씨젠메디칼타워



(재)씨젠의료재단 본원
부산경남검사센터
대구경북검사센터
광주호남검사센터
대전충청검사센터



검사의뢰·학술문의 1566-6500



Open Healthcare HQ
Open Healthcare Kazakhstan
Open Healthcare US
Open Healthcare Vietnam



씨차트 Always 고객센터 1600-0356

www.seegenemedical.com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

한 달간 회원 소통·지역사회 공헌·세대 간 화합 활동 이어가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회장 황문선)가 11월 한 달 동안 회원 소통 강화와 지역사회 공헌, 세대 간 화합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연이어 진행했다.

먼저 18일(화)에는 '하반기 중소병의원 회원 간담회'를 개최해 중소병의원 회원, 중소병의원 위원회, 서울시회 집행부 등 총 65명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중소병의원 위원회의 역할과 향후 사업계획이 공유됐으며,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어 25일(화)에는 종암동 주민센터에서 대민사업이 진행됐다. 서울시회는 종암동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라면 150박스를 후원하며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실천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의 실질적 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추며, 임상병리사가 의료 영역을 넘어 지역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28일(금)에는 1965년 생 정년퇴임 회원들과의 간담회가 마련돼 오랜 기간 현장을 지켜온 선배 회원들과의 소통의 장이 열렸다.

정년퇴임을 앞둔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임상병리사의 전문성·직업적 정체성을 계승해 나가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서울시회는 "회원과 지역사회,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전문 직역 발전과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부산광역시임상병리사회

2025년 부산시 임상화학연구회 2차 집담회 개최

부산시 임상화학연구회(회장 안광섭)가 11월 27일(목) 오후 6시 30분, 씨젠 의료재단 부산경남검사센터 10층 회의실에서 2025년 부산시 임상화학연구회 제2차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담회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첫 번째 강의는 씨젠의료재단 부산경남센터 안광섭 실장이 맡아 '임상화학과 인공지능(AI) 활용 질병 예측부터 검사 오류 탐지까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애보트 마케팅 김민지 팀장은 'Abbott M2i Interface와 mQC 소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2025년 대한임상미생물검사회 부산지회 워크숍 개최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부산지회가 12월 10일(수) 오후 6시 30분 부산역 회의실에서 2025년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부산지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 연제 내용으로는 ▲Blood culture best practice(BD Korea 박동철) ▲부산지역병원의 혈액배양 양성률과 오염률 비교(부산백병원 곽은영)가 진행됐다.

경기도임상병리사회

2025년 제3차 보수교육 및 제2회 학생포럼 개최



경기도임상병리사회(회장 유광철)가 11월 8일(토) 제3차 보수교육과 함께 제2회 학생포럼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2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5개 대학이 참여한 학생포럼이 함께 개최됐다. 기존 참여 대학에 더해 수원과학대학교와 신한대학교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경기도회 학생포럼의 대외적 인지도 역시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또한 전년보다 전문화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순위를 발표함으로써, 참가 학생들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학술적 의욕을 북돋았다.

학생포럼 대상은 동남보건대학교(대표연자 이바다 외 4명, 김선규 교수팀)가 차지했으며, 최우수상은 안산대학교(대표연자 박예빈 외 4명, 강윤정 교수팀)가 수상했다. 이 밖에도 우수상은 수원과학대학교(대표연자 신현태, 박미영 교수팀)가, 학술상은 동남보건대학교(대표연자 이현지, 성현호·김선규 교수팀)와 신한대학교(대표연자 박하윤, 서혜경 교수팀)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광철 경기도회장은 "미래 임상병리사인 학생들은 학생포럼을 통해 학교에서 현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다"며 "학생포럼을 더욱 활성화해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의 강한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마지막 보수교육을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빈봉사단, 한국전립선 배뇨관협회 '창립 30주년 기념회' 초청받아



경기도회 다빈봉사단(문기춘 단장)은 한국전립선 배뇨관협회(이하 전립선협회) 사업에 2025년 처음 참여하여 10여 차례 채혈봉사를 진행했다. 전립선협회는 명실공히 비뇨의학과 명의들이 소속된 단체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봉사하고 있다. 채혈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전립선협회는 채혈봉사로 인해 수월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다빈봉사단에 항상 감사의 인사는 전했지만 그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11월 28일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전립선협회의 '창립 30주년 및 출판기념회'를 진행하며 다빈봉사단을 공식 초청해 그간 봉사에 참여했던 단원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이날 대표로 참석한 단원들은 바쁜 일정에도 개인시간을 할애하며 고생했던 시간들이 더욱 보람 있게 느낄 수 있었고 2026년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다.

유광철 경기도회장은 회원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전립선협회에 "내년에도 상호 호의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 양측 협회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비뇨의학과 의사들에게 임상병리사가 더욱 전문적이고 친근한 직종으로 인식되어 우리의 업무영역 확대에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

대구 남구청에 기부금 기탁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회장 문성식)는 12월 2일(화) 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에 기부금 400만 원을 기탁했다.

기부금은 구청과 연계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사랑의열매'로 전달돼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조재구 구청장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회가 매년 물품 지원과 현금 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복지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문성식 회장은 "이번 기부는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해 추진한 행사"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부 활동에 동참해 내년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대구사회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

감염병 의료기관 등 폐수처리시설 검증법 특허등록



전북특별자치도임상병리사회(회장 김민준) 권민주 대외협력실장(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은 지난 12월 감염병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의 폐수처리 검증을 위한 바이오 인디케이터(생물표지자) 제작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였다.

이 특허는 기존 감염병 병동 및 진단검사실이 검체와 기관 내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범위를 벗어나 기관 외부 및 환경으로 확산·유출될 수 있는 폐수의 감염성

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폐수처리 시설의 검증을 위한 바이오 인디케이터 제작 및 시험법을 담고 있다.

특히 병동 및 검사실 멸균을 위한 인디케이터는 시중에 판매되지만 보건의료인의 영역 밖에 해당되는 폐수처리 시설의 안전성 확보는 미흡하다는 점을 파악하고 표준화된 시험법을 개발하고자 노력했으며, 3년 이상의 등록 절차를 거쳐 마침내 배우자(충남대병원 이성은 교수)와 특허등록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권민주 실장은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이 검사실 안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환경 등에서도 필요성을 인정 받는데 보탬이 되어 뿌듯하다"고 전하며, "저보다 훨씬 뛰어난 선배 임상병리사들이 많다. 특허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고 권리를 만들고 사업화와 노후를 대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연구논문에 비해 어렵지 않으니 많은 분들이 도전해서 임상병리사의 역량을 증명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준 회장은 "우리 도회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지만 의료기관 업무에 매진하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북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국·공립 연구기관이 다수 유치해 있다.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연구직에 종사하는 임상병리사 회원들 또한 함께하여 지역사회에서 성장하는 전북도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

대구한의대학교 학술제 참석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회장 조대현)는 11월 26일(수), 제15회 대구한의대학교 학술제에 참석해 예비 임상병리사들과 소통하며 전문 직역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 소재의 대학인 대구한의대학교는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 학생포럼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명문학교로 이날 학술제에서는 LSI, FORM Lab, 과실연, 국제학술포럼 등에서 진행된 다양한 활동 성과를 학생들이 직접 발표하는 뜻깊은 학술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조대현 회장과 김종필 법제이사가 함께 참석했다. 조대현 회장은 학생들의 학업 발전 기여를 위한 학술상 장학금을 수여했고,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미래 보건의료 환경에서의 전문성, 그리고 현재 협회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예비 임상병리사들의 위상을 드높이고 격려했다.



또한, 김종필 이사는 신경과 검사 분야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진료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이사는 '어지럼증 검사'에 대한 주제로 검사의 개요부터 임상 적용,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 향후 전문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 등을 설명했고 학생들이 직접

실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장비 검사도 함께 진행했다.

경북도회는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예비 임상병리사들에게 실질적인 진료 정보와 현장 지식을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회원들과 소통을 위해 지역분회 연말모임 참석



경상북도임상병리사회는 연말을 맞아 도내 각 지역 분회에서 열린 연말모임에 참석하며, 회원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말모임은 지역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온 회원들을 격려하고, 회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조대현 회장은 ▲11월 20일 구미2분회 ▲11월 27일 포항1분회 ▲12월 8일 구미1분회 ▲12월 19일 경주분회 연말모임에 참석해 분회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도회의 주요 활동과 향후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비록 일정상 참여하지 못한 분회에는 일일이 격려를 전하며 회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지역 분회 연말모임에서는 식사와 담소를 비롯해 다양한 게임과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며 한 해 동안의 노고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임상병리사로서의 고민과 현장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나누며, 지역 분회와 도회 간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조대현 회장은 "올해도 각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회원 여러분 덕분에 경상북도 임상병리사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회는 지역 분회와 함께 회원들의 권익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북도회는 2026년에도 회원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지역 분회와의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 개최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학회장 김상훈)는 11월 9일(일), 강북삼성병원 대회의실(C관 B2)에서 '2025년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Today with AI, Tomorrow with Humanity'를 주제로, AI 기술 발전 속에서 임상생리검사의 현

재와 미래, 그리고 환자 중심 검사의 가치를 함께 조망했다.



신경계, 순환계, 호흡계, 특수감각 분야를 중심으로 EEG, EMG, 심장초음파, TCD, ABL, autonomic function test 등 임상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최신 검사 기법과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Advanced EEG, Echo, Carotid Ultrasound, TCD 등 실습 중심의 워크숍을 통해 회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도모했다.

김상훈 학회장은 "AI는 이미 임상 현장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지만,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검사를 수행하는 임상병리사의 역할과 인간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학술대회는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임상생리검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회원 간 학술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

2025년도 추계학술대회·화학전문임상병리사
보수교육 및 학생포럼 개최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학회장 이승모)는 11월 1일(토) 건국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2025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임상화학의 최근 기술 동향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임상화학 분야의 최신 기술과 진단검사의 미래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차경호 명예회장(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의 특강으로 시작됐다. 차 명예회장은 임상화학 분야의 기술 발전 흐름과 함께 향후 진단검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폭넓은 통찰을 제시했다. 이어 임용 교수(동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AI 의료 환경과 진단검사의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이 임상검사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임동철 회원(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의원)은 지질 검사의 이해를 주제로 지질 검사 해석의 핵심과 임상적 적용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로슈진단에서는 AON 및 Roche 디지털 제품 활용 현황을 소개하며,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한 검사실 운영과 진단 지원 사례를 공유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에는 화학전문임상병리사 보수교육과 제1회 대한임상화학검사학회 학생포럼이 개최됐

다. 화학전문임상병리사 보수교육에서 정재우 교수(동국대학교 일산병원)는 정도 관리의 이해를 주제로 검사실 품질관리의 기본 개념과 실제 적용 방안을 설명했으며 조종보 부학회장(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신규 검사 도입 시 평가 방법에 대해 강의하며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했다.

학생포럼에는 전국 8개 대학이 참여해 학생들의 임상화학 분야에 대한 참신한 시각과 연구 아이디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 중 '에너지음료 음용에 따른 인체 생화학적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팀(지도교수 박용원, 대표자 음지영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

학회는 이번 추계학술대회가 임상화학 분야의 최신 기술 동향과 미래 발전 방향을 조망하는 한편, 보수교육과 학생포럼을 통해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와 차세대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씨젠의료재단 AI연구소, '슬라이드 흐림 대비 AI 예측 안정성'
SCI(E)급 연구 논문 발표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이사장 천종기, 이하 씨젠의료재단)'은 AI연구소 김호현 연구원, 고영신 선임병리부원장 겸 연구소장 직무대행, 김경은 병리부원장 겸 연구소 책임전문의 등이 참여한 연구 논문 '슬라이드 이미지의 초점 흐림과 AI의 예측 성능 평가: 후향적 관찰연구[Evaluating the robustness of slide-level AI predictions on out-of-focus whole slide images: A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가 SCI(E)급 국제 학술지 'Journal of Pathology Informatics' 2025년 11월호에 게재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씨젠의료재단은 조직병리 진단 질관리 시스템 SeeDP(Seegene Digital Pathology)를 도입,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병리 전문의 판독 결과를 AI가 2차 검토하여 진단 오류 가능성을 조기 포착하고 판독 재검도를 유도한다. 이로써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일관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는 10대 암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조직병리 진단 서비스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이번 연구는 실제 조직병리 진단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슬라이드 초점 불량, 즉 부분 흐림이 병리 AI 모델의 최종 슬라이드 단위 예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여러 스캐너 및 AI 모델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검증을 마쳐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연구팀은 2종 장기·2종 스캐너로 생성된 7,529장의 슬라이드 이미지 그리고 해당 이미지를 처리하는 4종의 병리 AI 모델 예측값을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일상적인 흐림 수준에서 예측 일치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연구팀은 흐림 영역 비율과 예측 불일치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뚜렷한 연관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Z-stack(여러 초점으로 촬영한 사진 묶음)을 이용한 추가 실험에서는 초점 평면이 $\pm 6 \mu\text{m}$ 정도 흔들려도 AI 슬라이드의 판독 정확성이 유지돼 표현 자체가 잘 보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연구팀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흔히 관찰되는 초점 흐림이 슬라이드 단위 병리 AI의 진단 성능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점을 실제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다. 과도한 화질 선별, 초점 흐림 복원용 AI 개발 등에 의존하지 않고 AI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씨젠의료재단 천종기 이사장은 "실제 임상 환경에서 흔히 발생하는 초점 흐림이 AI 진단 신뢰도를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디지털 병리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상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실증 연구와 기술 혁신을 통해 AI 기반 정밀의학의 보편화, 글로벌 표준 확립 등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TR
CORPORATION

2026년 공단검진 폐 기능 검사 추가 The Spirokit으로 대비하세요



검사 결과 AI 자동 판독 및 분석

- GINA, GOLD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AI의 판독 & 분석
- 증상에 맞는 처방과 약물을 추천
- 호흡기 비전문의도 폐 기능 검사 가능

간편검사 및 검사가이드 S/W

- 검사 가이드 화면으로 검사과정 안내
- 검사 실패 확률을 줄여 검사 시간을 단축
- 검사 스트레스와 피로도 감소

검사 결과 AI 자동 판독 및 분석

- 2026 진폐정도관리 평가항목 준수
- 실제 의료기관 내 특수건강검진 사용

간편검사 및 검사가이드 S/W

- 높은 휴대성으로 병동 폐 기능 검사 가능 (무선 PACS 연동으로 병동검사 수가청구 O)
- 행위수가 F6002 / E7123 적용
- 공단 일반폐기능 검진 F6001 적용

제품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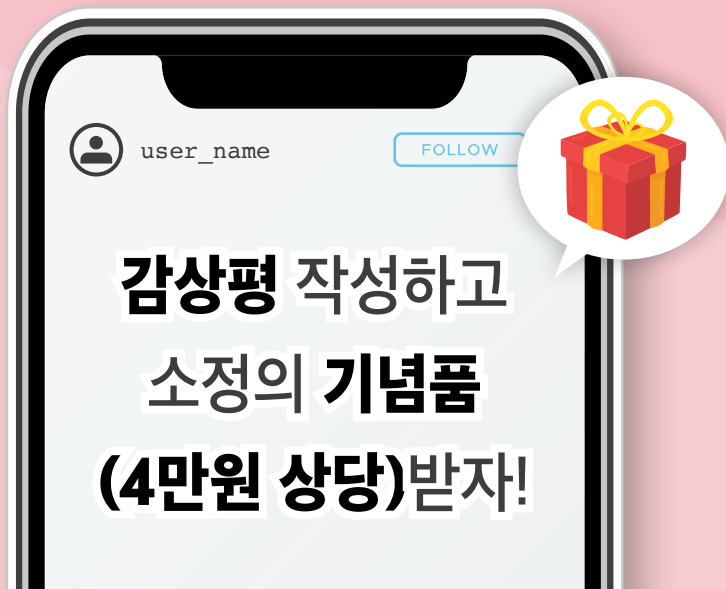
042-719-8823

newxman@theresearcher.co.kr

차세대 의료기기 전문기업
TR CORPORATION

감상평 EVENT

★ 병리협보가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 | | |
|-------------|---|
| 접수기한 | 2026년 1월 23일(금) 18:00까지 전송 |
| 접수방법 |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 접수양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 성명, 면허번호, 상품받으실 주소 |

♥ 제515호 당첨자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임상병리사를 위한 흥미로운 보험정보

■ 곽민정(정회원) / 면허번호 : 21846

중앙회에서 올해 폐기능 검진검사 추가로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12월 병리협보에서 폐기능검사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호흡과정의 기능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폐활량 측정법을 통해 호흡능력을 평가하여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호흡기 질환을 진단하는 검사라는걸 배웠습니다.

검사 금기사항 및 검사 전 유의사항은 실무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며 협회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교육 개설에 감사드립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SNS

카카오톡채널 친구추가 및 SNS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카카오톡채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인스타그램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페이스북 페이지



회원소식을 전달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소식이 궁금합니다.

[kamtreporter@daum.net]로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보내주시면
병리협보에 빠르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12월 언론보도

기사 제목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12.01 세이프타임즈



임상병리사협회, 건강검진 지원 ...
의료 접근성 높ی겠다



2025.12.02 세이프타임즈



성북 자부심과 기부대모 뭉쳤다 ...
종암동 산타의 6년 온정



2025.12.02 의학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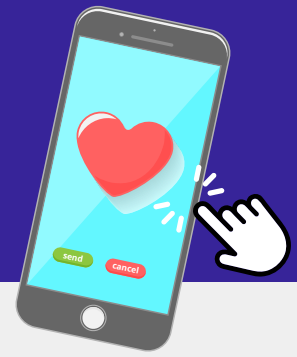
의학신문

임상병리사협회 서울시회, 서울시민 행사
'건강검진 부스 운영'



16개 시도회 SNS

해당 시도회를 누르시면 접속 가능합니다. 팔로잉과 친구 추가 해주세요.



부산시회
임상병리사회



광주시회
임상병리사회



인천시회
임상병리사회



울산시회
임상병리사회



경기도회
임상병리사회



강원도회
임상병리사회



충남도회
임상병리사회



전북도회
임상병리사회



경북도회
임상병리사회



경남도회
임상병리사회

▶ 채널 바로가기



서울시회 
임상병리사회



대구시회 
임상병리사회



광주시회 
임상병리사회



경기도회 
임상병리사회



경남도회 
임상병리사회



충북도회 
임상병리사회



강원도회 
임상병리사회